

# 미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중 "결연한 반격"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중국 정부가 양국 간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격 조치'를 예고했다.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laprensalatina.com

7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일련의 중요한 분야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8년 토스엔젤레스 하계올림픽 때 외교적 보이콧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는 이미 중미 스포츠 교류와 올림픽 협력의 기초를 깬 것"이라며 "미국은 이 잘못된 행위 후의 결과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각국 관리가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자국 올림픽위원회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초청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 파견 여부를 신장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흑백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국의 일련의 중요한 분야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고려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

# "타이거 우즈, PNC 챔피언십 출전 고려 중"

타이거 우즈가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 출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태일리'에 따르면 골프닷컴은 이날 우즈 측근의 말을 빌려 "우즈가 곧 PNC 챔피언십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끝난 타이거 우즈 재단 주최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기간에 나홀로나 연습장에서 볼 때인 것도 PNC 챔피언십 출전을 염두에 두고 스윙을 점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최근 힘겨운 재활을 거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목발 없이 걷는 데 이어 연일 연습장에서 샷을 가다듬는 모습을 공개해 필드 복귀 기대를 모았다. 우즈는 최근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풀타임 시즌을 뛰지는 못하지만, 필드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 바 있다.

우즈가 직접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꼽히는 대회는



▲ 타이거 우즈. 사진=shutterstock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막하는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이다. 메이저 대회 또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가족과 함께 팀을 이뤄 치르는 대회로 우즈가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매체들은 대부분 우즈의 PNC 챔피언십 출전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는 "일주일 전까지 우즈를 위해 출전 선수 자리를 비워놓겠다"고 밝혔다.

# 올림픽 후원 기업들 미·중 눈치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월드와이드 파트너' 13개 기업

미국이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 올림픽 후원 기업들로 불참 압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전 "스폰서 등 올림픽을 후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 분야가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림픽의 핵심 후원 기업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월드와이드 파트너' 계약을 맺은 13개 기업이다. 이들은 올림픽 마케팅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는 대신 IO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다. 코카콜라, P&G, VISA, 인텔, 에어비앤비(이상 미국), 브리지스톤, 파나소닉, 도요타(이상 일본), 삼성(한국), 알리안츠(독일), 알리바바(중국), 아토스(프랑스), 오메가(스위스)가 그들이다. 이들은 파트너 자격을 얻으며 약 1억 달러(약 1,178억 원)를 냈다. IOC는 이들로부터 4년 주기로 4조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 마케팅 효과가 줄어든 데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마저 마케팅을 못하면 이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또 미국의 압력에 따를 경우 거대 시장인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 코카콜라, P&G 등 월드와이드 파트너 중 상위 10개 기업이 중국에서 올리는 수입은 연 1,1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이 선택을 강요할 경우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 싸인 플러스 ★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 트로피

세리토스점

# SIGNPLUS

TROPHY & ENGRAVING

SAME DAY SERVICE AVAILABLE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 (562) 809-0448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